

전주시, 10~11월 두달동안
덕진공원 청사초롱 이벤트

전북 대표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는 덕진공원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밤바람과 가을추위를 위해 청사초롱이 불을 밝힌다.

전주시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전주 덕진공원에 연꽃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 청사초롱 체험과 야간공연을 연계한 덕진공원 청사초롱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청사초롱 이벤트 기간 중 전주 덕진공원을 주제로 SNS사진 공모전이 진행되고, 한지등 만들기 체험과 야간공연도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 될 예정이다.

SNS사진 공모전은 덕진공원에서 찍은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전주 대표관광지, #덕진공원, #가을추위)를 덕진공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wajeonju)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wajeonju)에 등록하면 된다. 덕진공원을 방문한 내·외국인 누구나 10월 한 달간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1일권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지등 만들기 체험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가을과 어울리는 버스킹, 포크송, 추억의 노래 등 관광객의 이목을 끄는 공연이 펼쳐져 덕진공원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CC관제센터,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전주시 CCTV관제센터가 자살예방과 범죄예방,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는 추석연휴기간인 지난 9월 23일 오전 00시경 아중호수 다리 주변을 서성이며 난간을 넘어가려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112와 119에 신고, A씨가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4일에도 오전 1시 49분 전주시 효자동 소재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금을 강취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CCTV로 이동경로를 추적해 검거토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올 한해 절도와 폭력, 자살 기도자 구조, 교통사고, 청소년선도 등 총 1,141여건의 CCTV 녹화영상 열람·제공으로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15일부터 '한복문화 주간' 한복의 일상화 · 일상의 한복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18 한복문화주간'의 개막식이 오는 15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다.

'2018 한복문화주간'은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가 한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보다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남녀노소 모두가 공간과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한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이라는 슬로건과 비시볼도 개발했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故이영희 디자이너를 추모하는 한복패션쇼 비롯해 다양한 축하 공연 및 2018 한복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

개막식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15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된다. 개막 공식 선연을 시작으로 오프닝 영상 상영을 비롯해, 한복의 다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일명 '바람의 옷'을 짓는 한복 디자이너로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던 故이영희 디자이너를 추모하며 한복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한복패션쇼가 특별하게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전주지역 대표 한복 디자이너가 선보이는 패션쇼도 함께 진행되어 전주한옥마을에서 개최되는 한복 문화주간 개막식의 의미를 더욱 빛내게 될 예정이다.

▲전주를 비롯 전국 10개 지역에서 한복 전시·체험·퍼포먼스 등 7가지 테마별 한복문화 프로그램 진

행
전주한옥마을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2018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한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복문화주간이 열리는 일주일 동안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침선장 최은순씨가 보유한 공중의상이 전시되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전통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통 배틀에서 삼배짜기를 시연함은 물론 실제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한복 즉석사진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20일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한복패션쇼인 '내가 한복의 왕'이 펼쳐지며 15일과 19일에는 초등 학교 10개 팀이 참여하는 강강술래 경진대회가 열린다. 또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복 플래시몹을 비롯해 실버 한복부용 공연도 전개될 예정이다.



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 한복문화주간 개막식'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서 개막식... 故이영희 디자이너 추모
즉석사진 인증 · 한복의 왕 · 실버 무용공연 등 프로그램 진행

김양원 전주시장은 "한복의 일상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문체부 주요 사업인 '2018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을 전통문화 대표 도시인 전주에서 개막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복과 전통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전주시의 명성에 걸맞게 한복문화주간 동안 보다 특별한 전주시민의 한복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전주다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 한복문화주간'은 전주를 비

롯해 서울, 양평, 순천,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증평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열리며 개·폐막식, 패션쇼, 전시, 교육, 퍼포먼스, 상점, 여행 등 7가지 테마별 한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복문화주간 공식 웹 페이지(www.hanbokweek2018.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동참,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 높은 민간기업

까지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의미 높여

'2018 한복문화주간'은 각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역 한복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물론 전국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0여 개 등도 동참한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을 입고 해당 문화시설 및 관광지를 방문하면 입장료가 무료 또는 할인되며 각 문화시설에서 자체 진행하는 한복문화 프로그램의 참가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2018 한복문화주간'에는 전주시에서는 한복맞춤의 경우 30% 할인과 한복대여점 50%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LG생활건강 '수려한', 프리미엄 식빵 전문 베이커리 '밀도' 등 민간기업들의 공식 협력사 참여도 이어져 다양한 이벤트 및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내 한복문화주간의 성공을 기원하며 적극 동참한다. 그 외에도 부산, 대전 등의 전통시장, 한복업체도 참여한다.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한복의 일상화, 대중화를 위해 한복 디자인 발전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한복문화 콘텐츠 개발에 고심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복문화주간은 지역·공간적 특색을 반영해 각 도시만의 매력과 한복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색적인 한복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의 관문, 호남제일문 보수·정비 추진

시, 내년 6월까지 3억 투입

전주의 관문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호남제일문의 보수·정비 공사가 추진된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억원을 투입해 호남제일문의 하부 바닥 단청과 교대·교각, 바닥 균열, 계단 난간 이격부분 등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호남제일문은 한옥형의 전주블게이트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전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관문이지만 건립된지 24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도색이 벗겨져 미관을 저해해왔다. 특히, 호남제일문의 교대

와 교각, 바닥판의 경우, 지난 2017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위해 보수가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000만원을 투입해 교대 및 교각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올 연말 안에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관조명 설치와 하부바닥 단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확보 후 착공에 들어가 6월 이전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호남제일문은 전주의 대표 건축물이자 소중한 미래유산인 만큼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내 조폭 활개... 조직·조직원 '여전'

조직 16개 · 조직원 343명... 올해 8월 기준 169명 검거
유형별로 지난 5년동안 폭행이 74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의 꾸준한 관리에도 전북지역 조폭조직과 조직원의 규모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서 활동하는 조폭조직은 16개, 조직원은 34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6개(343명), 2015년 16개(344명), 2016년 17개(303명), 지난

해 16개(334명)에 이어 여전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폭범죄에 따른 검거 현황을 보면 2014년 81명, 2015년 229명, 2016년 334명, 지난해 174명, 올해 8월 기준 169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조폭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폭범죄 유형(전국 기준)으로는 지난 5년 동안 폭행이 7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갈취 900건, 사행성 불법 영업 808건, 마약류 범죄 314건, 사채 및 탈세 97건 등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이 의원은 조폭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폭력을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는 조폭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직폭력은 물론 동네조폭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